‘매매 과정 전자계약’ 중고차 시장 디지털 전환 힘 모은다

KT-㈜모빌리티전자계약 MOU
허위매물·이중계약 등 예방 기대

KT 전남전북광역본부가 최근 ㈜모빌리티전자계약과 중고차 매매 전자계약·제시매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 제공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최근 ㈜모빌리티전자계약과 중고차 매매 전자계약·제시매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는 7개 협력사와 전자계약 서비스 ‘KT mobility365’ 얼라이언스 제휴협약이 함께 이뤄졌다.

행사에는 KT 김장수 제주단장, 모빌리티전자계약 신인철 대표와 △진인프라(통신) △포시에스(전자계약 솔루션) △신한카드(중고차 금융) △DB손해보험(자동차 보험) △오토업(차량 데이터)·워프드라이브(부품 데이터) △카방(온라인 이전) 등 각 협력사 대표 및 책임자가 참석했다.

이를 통해 KT는 중고차 매매 전자계약·제시매도 구축사업을 위한 투자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빌리티전자계약은 전용 플랫폼 개발과 운영을 맡게 된다.

협력사와는 시스템 연동 및 공동 마케팅 실행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중고차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힘을 모은다.

제시매도신고란 중고차 매매 시 매매업체가 관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매입된 차량을 제시 신고하고 판매된 차량을 매도 신고하는 자동차관리법상 의무 절차다.

기존 제시매도신고 전산 프로그램은 제시, 매도, 반환 신고에 대한 단순 기능만 제공하고 매매관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지 못했다.

KT mobility365는 정식 등록된 딜러의 중고차 매매를 기존 서면계약 방식에서 전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동차 사양 조회, 사고이력 조회, 압류 조회 및 금융, 보험, 온라인 이전, 경매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자동화해 전용 태블릿 기반의 통합 서비스로 제공한다.

소비자들에게는 중고차 매매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허위매물, 이중계약, 중요 정보에 대한 미고지 및 대리서명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며 온라인 이전, 등록 등의 행정처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신인철 모빌리티전자계약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고차 매매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소비자의 권익과 판매자의 업무 효율을 증대하겠다”며 “데이터, AI 기반의 중고차 매입부터 판매 프로세스를 통해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제주단장 김장수 상무는 “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명한 중고차매매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에 순차적으로 ‘KT mobility365’를 보급할 계획으로 중고차 시장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압구정 유명 갈비 광주서 만나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행사장에서 서울 압구정 유명 갈비 맛집인 ‘삼원가든’ 행사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삼원가든은 부드러운 육질과 깊은 풍미를 가진 갈비 전문점으로 48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양념 왕갈비, 양념 한우 불고기를 비롯해 LA갈비까지 갈비 명가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롯데광주점 제공

“국세·지방세 민원 업무 한 곳에서 보세요”

해남세무서-완도 통합민원실 협약
내달 입주…세무·납세 편의 제공

해남세무서는 최근 완도군과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남세무서 제공

해남세무서(서장 박현주)는 최근 완도군청 사무실에서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기관에 별도 방문해 국세·지방세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나, 이날 협약식을 통해 완도군청 내에 국세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완도군청 내 통합민원실을 개설하면 국세민원발급, 사업자등록업무, 국세 신고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하게 돼 완도군민의 세무행정 및 납세편의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세무서는 사무공간 준비를 위한 공사를 마치고 6월 중 입주해 납세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현주 해남세무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세·지방세 민원업무를 원스톱 처리하게 돼 방문 민원인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께 인정받는 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하고 절세혜택 누리세요”

종소세 신고 기간 가입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사장님의 절세 전략’으로 손꼽히는 노란우산 가입을 적극 권장중이다.

1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는 이들의 목돈마련 제도로 폐업·노령 및 재난 등 사장님들이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하면 매년 납부한 총 부금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예상되는 절세 효과는 최소 39만원에서 최대 154만원이다.

절세 효과에 민감한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평소보다 50% 이상 노란우산에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월 평균 노란우산 가입자수는 약 2만명이지만 5월에만 약 3만명씩 가입했다.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이미 선택한 노란우산은 사업비를 떼지 않고 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목돈마련’ 제도로 거듭났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까지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도 인하된 반면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지급이율은 2023년부터 3.3%로 유지중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한다”며 “더 많은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으로 비용도 줄이고 폐업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감도 줄여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전남농협, 하나로마트 선도조합 협의회 정기총회

농협전남본부(본부장 이광일)는 12일 전남본부 2층 대강당에서 협의회 소속 농축협 조합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하나로마트 선도조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하나로마트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에도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2024 광주전남 하나로마트 경영대상’ 시상식이 열려 해남농협, 북광주농협, 함평농협, 녹동농협, 서영암농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은 “빠르게 변해가는 유통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